

# ① 世界景氣 成長鈍化에 貿易도 주름살

沈 永 燮

〈産業研究院 研究員〉

## I. 概 觀

내년도 世界經濟는 금년에 비해 景氣가 후퇴할 것이라는 展望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비관적인 의견으로는 금년 하반기의 景氣鈍化를 시발로 해서 내년부터는 景氣가 급속히 위축될 것이며 86년에 가서는 마침내 不況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주장, 景氣沈滯의 幅을 다소 크게 내다보고 있는 側이다.

이에 비해 비교적 낙관적인 의견으로는 내년도의 世界景氣가 금년보다는 못할지라도 대체로 3%대의 착실한 成長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世界經濟가 당분간 安定的인 擴張勢를 持續하게 되리라고 내다보는 側이다. 여기에 더하여 아직은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지만 世界經濟가 50年을 주기로 好況과 不況이 순환한다는 長期波動說, 즉 콘트라티에프 景氣사이클理論을 들어 바야흐로 景氣가 長期回復局面에 進入하고 있다는 극단의 낙관론을 제시하는 측도 있다.

世界景氣에 대한 비관적 의견이나 낙관적인 의견을 막론하고 이러한 展望들은 모두 내년이나 그 이후의 美國經濟向方에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즉 비관적인 의견의 근거로는 내년이후의 미국경제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거나 어두울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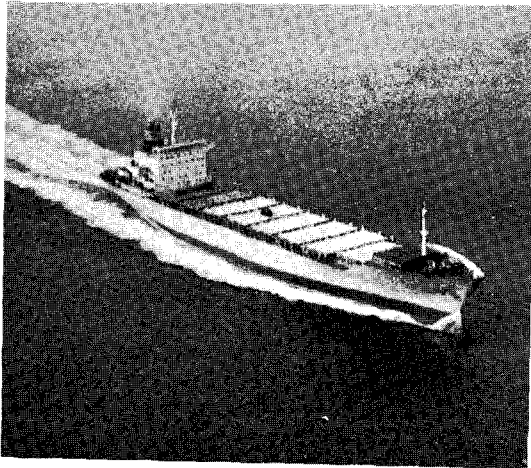
는 예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낙관적인 의견의 근거는 미국경제의 成長潜在力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어서 내년도의 경기전망이 일반의 예상만큼 그렇게 어두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美國經濟의 進路는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85년도 全世界의 景氣風向에 특히 중요한 變數로 作用할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최근 2년사이에 進行되었던 世界經濟의 回復勢는 그 어느 때보다도 美國經濟 하나에 집중되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 向後의 展望도 이를 中心으로 관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향후 美國經濟를 중심으로 日本 및 유럽主要國 그리고 開途國의 景氣와 세계무역의 推移를 전반적으로 展望해 보고자 한다.

## II. 美國景氣

지난해 하반기부터 回復의 기운을 보였던 美國經濟는 금년들어 本格的인 擴張勢를 示顯, 지난 1/4 분기에는 前期比 年率로 10.1%의 成長을 기록하였고 2/4 분기에도 7.1%의 높은 成長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금년 下半期들어서는 景氣가 急降下하여 3/4 분기의 成長率이 1.9%에 불과하였고 4/4 분기의 展望도 3%내외의 성장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금년도 美國經濟의 成長率은 전체적으로 7%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下半期





또한 貿易收支의 赤字幅이 擴大되어감에 따라 이를 補填시킬만한 海外資本의 流入必要性이 크게 증대되어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聯準이 美國의 金利政策을 지속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與件下에서 實事 聯準이 내년도에 通貨政策을 통하여 景氣浮揚을 시도하려 한다 하더라도 金利水準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通貨政策 또한 制限的일 수 밖에 없다.

金融專門家들은 美國金利가 聯準의 緊縮緩和와 景氣鈍化로 인한 民間部門의 資金需要增加幅 감소로 내년 中반까지는 下落勢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11月末 현재 11.25%인 美 프라임레이트가 내년도에 10%이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景氣調節을 위한 政策手段의 幅이 제약되어있다면 美國經濟의 向方은 自生的인 努力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첨단산업분야에서의 기술개발이 급속도로 진전되어가고 있고 이에 대한 投資도 붐을 이루고 있어서 장래의 경기를 주도해 나갈 요소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 Ⅲ. 日本 및 유럽主要國 景氣

日本과 유럽국가들은 금년도에 美國經濟의 好調에 힘입어 높은 成長을 실현할 수 있었다. 특

히 日本과 西獨은 對美輸出의 急伸張으로 금년 중에 각각 5.5%, 2.5% 정도의 成長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美國景氣의 鈍化로 이들 국가도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며 成長率은 금년만 못할 것 같지만 景氣後退의 幅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년중에 꾸준한 成長勢를 보였던 英國과 금년의 成長勢가 微弱한 편이었던 프랑스 등은 내년부터 設備投資와 産業生産이 本格化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년보다는 成長率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본다면 美國과 日本 그리고 유럽主要國間의 成長率 隔差는 크게 줄어들게 되어 내년중에는 成長의 底邊이 擴大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

그러나 日本을 제외한 유럽국가들의 경우는 내년도에 景氣가 活潑해진다 하더라도 만성적인 失業問題를 해결하는 데에는 成長勢가 크게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럽각국이 최근 과잉상태인 구식산업설비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失業問題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노사간의 불안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日本 및 유럽各國의 내년도 景氣展望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금년중에 5.5% 정도의 實質成長을 이룩할 것으로 보이는 日本經濟는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다소 景氣가 후퇴하여 4~5% 정도의 成長이 예상된다. 금년도 日本 經濟의 활발한 成長勢는 주로 對美輸出의 急伸張에 힘입은 것인데 내년도에는 美國景氣의 後退로 금년과 같은 對美輸出의 急增을 기대할 수가 없어 그만큼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尖端技術産業部門을 中心으로 활발한 投資活動이 예상되고 民間의 消費支出도 好調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내년도 景氣展望이 여타 先進國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두운 편은 아니다.

經濟專門家들은 日本이 지난 60年代에는 연평균 11%에 가까운 高度成長을 실현하였고 70년대에 6%의 成長을 그리고 80년대에 들



2% 정도의 成長으로는 만성적인 失業解消에 큰 도움이 못될 것으로 예상, 내년에도 失業率은 9~1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英國經濟는 금년중에 2.3% 정도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나 내년도에는 成長勢가 다소 활발해져 2.7% 정도의 成長이 가능할 것으로 展望된다. 英國은 금년내내 政府의 産業調整施策에 반발한 炭鑛勞組의 파업사태로 시달려왔으나 내년에는 同 罷業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産業生産이 活氣를 띠 것으로 보이고 民間의 소비 지출 등 內需의 增加도 기대되고 있어 景氣가 다소 活性化될 것 같다.

그러나 成長勢가 그리 높지 않고 政府의 적극적인 産業調整施策으로 失業率은 13%台的 높은 수준을 지속할 展望이다.

#### IV. 開途國 景氣

開途國의 經濟는 先進國經濟와 일정한 時차를 두고 景氣回復勢를 뒤잡아 갈 것으로 보여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금년보다 높은 成長을 이룩할 것으로 예상된다. 開途國 全體로 볼 때 84년에는 3%에 못미치는 成長을 달성하겠지만 85년에는 3.5% 정도의 成長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開途國들 사이에도 各國別로 내년도 景氣展望에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먼저 금년들어 對美輸出의 急增에 힘입어 8% 이상의 高度成長을 실현할 것으로 보이는 韓國, 台灣, 香港, 싱가폴 등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은 85년에 美國經濟의 成長勢가 둔화됨에 따라 成長率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美國, 日本을 비롯한 先進國들의 經濟가 내년도에 대체로 安定的인 成長勢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의 世界貿易環境도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 국가의 成長率이 85년에는 대체로 7% 정도에는 이를 것으로 展望된다.

한편 지난 3년동안 外債償還問題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전해 온 中南美經濟는 최근 外債危機가 점차 緩和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國內經濟政策에 다소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다 先進國 景氣擴張의 파급효과도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85년에는 금년의 1%보다 크게 높은 3% 정도의 實質成長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中東產油國들은 내년도에 世界石油需要 및 油價가 크게 回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成長勢가 저조한 수준에 그칠 展望이고 아프리카國家들은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經濟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餘他國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 2% 정도의 成長에 머물 展望이다.

#### V. 世界貿易展望

美國을 비롯한 主要先進國들의 景氣가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 다소 鈍化될 展望이어서 내년도 世界貿易의 伸張率도 금년보다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금년에는 美國의 輸入伸張率이 무려 30%에 이르렀기 때문에 輸入物量을 기준으로한 全世界의 貿易伸張率이 10%를 上廻하였다.

그러나 내년에는 美國과 日本의 輸入伸張率이 금년보다는 훨씬 낮은 8% 정도로 安定되고 유럽各國도 4~6% 정도의 輸入伸張이 예상되고 있어 全體的으로는 貿易伸張率이 다소 鈍化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82·83년의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6% 수준에 달한 것으로 展望된다.

대체적으로 내년도 主要先進國들의 貿易環境을 살펴보면 美國의 경우는 날로 擴大되는 貿易赤字를 경계하며, 유럽國家들의 경우는 예상되는 낮은 成長率로는 악화된 雇傭事情을 好轉시킬 수 없다는 현실속에서 保護貿易障壁을 더 한층 높혀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에서 내년도 世界景氣와 貿易展望을 살펴본것과 내년에는 景氣가 다소 鈍化되고 貿易環境도 약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對外經濟與件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내년도 世界經濟展望은 그렇게 어두운 與件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